

이 봄 '즐거시'를 외치며 봄을 즐기자

작가 에세이

김면수

시인·대한파크골프
광주연맹회장



몇 일전 오랜만에 다양한 분야의 지인들과 막걸리 전문 식당에 동행했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전직 교수님의 진담반 농담반의 이야기가 떠 오른다. 자신이 건강하게 80년을 산다면, 26년은 잠자고, 21년은 일하고, 9년은 먹고 마시는 시간이고, 행복함을 느끼며 미소 짓는 시간은 겨우 20일 정도라는 것. 고민하는 시간 5년, 기다리는 시간 3년을 소비할 수 있다는 삶의 시간 계산법을 이야기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자신이 팔십 평생 동안 산다고 가정했을 때 겨우 20일 정도 밖에 행복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삶이 너무 아픔으로 다가 온다는 것 이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화내는 시간을 줄이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시간'에서 대화를 나누어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견배사도 '즐거시(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의 시간들)'였다.

중국의 고전에 소개되는 우화에 황하의 신 하백이 끝없이 펼쳐진 자신의 강에 흡족하는 이야기가 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모두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하백. 어느 날 그는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동쪽 끝에서 거대한 바다를 만났다. 하백은 망망히 펼쳐진 바다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그동안 자기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백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 '약(若)'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의 좁은 소

견을 누우치면서 조연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약은 하백에게 '세상에는 새로운 번신을 방해하는 세 가지 그물이 있다'고 조언했다.

첫째는 공간의 그물인데,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시간의 그물이라고 했다. 여름 한 철만 살아가는 곤충은 겨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의 진단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의 그물이라 했다.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 생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에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얽힌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방향에 담겨 있을 것이다.”**

각하는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지식의 그물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는 미래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조언을 제시 했었다. 공간을 파괴하고, 시간의 속도를 재조절 해 지식을 재신임 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공간과 시간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장자가 꿈꾸는 난세에 영혼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변화되는 사회를 바라 보

면서도 자신만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변화의 기회는 멈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날 대푯집에서 전직 교수가 했던 견배사를 생각해 봤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얽힌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방향에 담겨 있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 현재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었고, 미래는 상상의 결정에 따라 바뀌고, 현재는 지금 생각과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변화를 바라지 않고 현재만을 고집한다면 아무 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 어찌 보면 단순한 이 진리야말로 유구하게 이어져 온 인류역사가 주는 조언일 것이다. 그렇다고 변화의 물결에 무조건 휩쓸려서도 안될 것이다. 중국의 고전 우화에 나오는 하백처럼 자신의 부끄러움도 누우칠 수 있어야 하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조언했던 것처럼 고정관념과 공간의 시간에 갇혀서도 안될 것이다.

세상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있다. 불과 100년도 안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이제 43주기를 맞는 5·18광주민주화쟁쟁마저 정정의 수단으로 삼아 왜곡하고 폄하하는 '못 난' 세력이 그들의 좁은 소견이 전부인양 그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했다. 권세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 또한 자신의 번신을 방해하는 그물일 뿐이다. '도처춘풍(到處春風·모든 곳에 봄바람이 분다)'의 계절이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봄 날 모두가 즐거움과 긍정의 시간에서 변화의 물결을 다짐하는 '즐거시'라는 견배사를 외치며 이 봄을 즐길 일이다.



기고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

청소년,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청소년의 48.4%가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도 각각 43.7%와 41.6%로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46%로 높아졌다.

하루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고 자연스레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 것을 배운다면, 청소년들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의회, 시교육청, 청소년활동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배움터다'를 추진해 오고 있다.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와 학원이 아닌 청소년시설, 창업공간, 미술관, 대학 등 도시 곳곳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로 배워나가며 배움의 즐거움을 찾고 주도성을 길러가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3년간 총 74개 프로젝트에 53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 기준 만족도가 92.4점, 역량평가는 사전 72.6점에서 사후 81.5점으로 8.9점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주도성이 길러진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자신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자원의 재활용)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금도 자신의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생리대가 자신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안 생리대를 연구했던

청소년들은 불편한 교복과 체육복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어가는 등 참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힘이 길러지고 있다.

혹자는 '교육은 교육청이 할 일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는 청소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이 복잡하고 복합적임을 살피지 못한 주장이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정부, 대학,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면, 최근에는 시민주체의 주도적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제 시민의 학습은 개인의 몫이 아닌 그 도시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청소년을 비롯한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청소년 주도성은 자신의 삶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성취하고 책임지는 역량이다. 학습과 자치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성으로 연결된다.

올해 광주시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도시'를 목표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확대를 계획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배움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지역 사회 학습장)을 늘리고 청소년 결에서 '긍정적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길잡이 교사 양성을 통해 광주다운 미래학습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의 도시, 광주가 되었으면 한다.

오는 21일까지 2023년 상반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 시내에서 2022-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독일)의 경기를 4시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 원정 팬들이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들은 독일인에 대한 입장권 판매 금지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나폴리=AP/뉴스시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쇼파석 (K/물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폰서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스즈메의 문단속
2관	소울메이트 / 플레인
3관	사참! 신들의 분노
4관	스즈메의 문단속
5관	소울메이트
6관	사참! 신들의 분노 / 이니세린의 밴시
7관	대외비 / 서치 2
8관	앤트맨과 와스프: 퀴벡대사
9관	플레인 / 멍멍이 / 카운트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더빙)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전용 주차장
-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제휴 주차장
-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09:00-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리미티드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가능 (제휴: 롯데, 롯데, 롯데, 롯데)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